

남원형 돌봄안전망 본격화

내년부터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실현 총력

남원시가 최경식 시장(사진)의 민선 8기 후반기에 남원형 돌봄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는 물론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에서 자체 개발한 돌봄 모델인 '남원형 돌봄안전망'을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선도로 이끄는 등 스마트한 돌봄을 시작하겠다는 전략이다.

남원형 돌봄안전망은 돌봄이 필요한 분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독립생활 지원을 통로 연계·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내년 초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시작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남원시는 민선식 부시장을 중심으로 주민복지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건소 등 남원형 통합돌봄TF를 구성, 5가지 추진과제들을 도출하는 등 남원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구축해 왔다.

추진 과제는 △스마트 돌봄 △남원형 일상돌봄 △위기가구 집중돌봄 △사각지대 발굴 강화 △빅데이터 기반 취약가구 관리 등으로, 내년부터 남원시만의 ICT 기술을 도입한 돌봄체계로 AI기반 안부살림 서비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돌봄인형, 복지안전 119 앱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스마트 경로당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방문 의료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도 최종 선정된 만큼,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돌봄 체계 마련의 선제적 행정 기반까지 갖춰져 스마트 돌봄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면동장 1일1가구 소통행정,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인적 안전망 활동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발굴된 대상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남원형 돌봄안전망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남원시는 11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2.7%를 넘어선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살림 서비스(네이버로보케어, KT AI 케이스피커, 스마트 플러그 등)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위기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최근에는 복지안전 119 앱을 개발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평생을 지키며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순창군, 기업인 소통 간담회

최영일 군수 "기업활동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 추진"

순창군이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전북 경제특성화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업 지원사업, 지역특화비자 추천제, 일자리 지원 등 각 기관의 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의 경제 현황과 주요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며, 농업과 장류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으며, 지역 대표산업과 융합한 상생발전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다뤘다. 참석 기업인들은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순창군은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동숙 대상(주) 공장장은 "군수님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과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역 대표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증대를 도모하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보건소, 감염병 대응 3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질병관리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도 감염병 관련 사업평가에서 기생충 매개체 질환 및 조사감시 최우수상 등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배경으로는 간흡충 감염의 위험 요인을 알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중 검사와 치료를 실시한 공을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생충 및 매개체 질환 조사감시 최우수상 기관으로 더불어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 사업 등 남원시보건소가 추진한 다양한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올여름 발생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 병원체와 감염원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를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하천정비 평가 '우수'

순창군이 보여준 하천관리의 탁월한 성과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방, 호안, 하상 정비, 가동보 관리,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지방하천 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춘계와 추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군은 21개소의 지방하천에 총 28억 5000만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제방 정비와 하상준설을 실시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앞장섰다.

특히 하천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잡목, 퇴적 토사,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하도준설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천과 추령천에서 하상 준설을 통해 통수 단편을 확보하고 하천 경관을 정비하는 등 하천 환경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 선정에 크게 기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준공

복합거점공간 제공

임실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됐다. 군은 지난 20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심 민 군수와 장종민 의장,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됐다.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 서비스 거점 공간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당초 사업비 39억원과 면사무소와 시설복합화를 위한 28억원의 추가 군비를 투입해 추진됐다.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임진로 정비 등과 함께 리더 교육, 주민 워크

숍 등의 지역역량강화도 전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휴게공간 확보와 도로 주변 경관개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등의 환경개선까지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했다.

심 민 군수는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이번에 준공된 성수면 행정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손쉽게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형 기자

남원농기센터-남원 원예농협,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난 20일,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로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원 원예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남원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수매하여 가공 상품으로 개발·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홍보와 유통망 확대를 통해 판매를 활성화하고,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 높이기 위해 협력하며,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 상호 논의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신정읍~신계동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동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정읍~신계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임실군을 포함한 전북 6개 지역을 관통하며, 115km 구간에 34만 5천볼트 초고압 송전탑 250여 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되었고, 경과대역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임지선정위원회의 표결로 결정되면서 공정성과 절차의 타당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송전탑 설치로 인해 산림 훼손, 농지 침해, 산사태와 산불 발생 등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임실=진홍형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